

종합

“문화전당 공사 조기 정상화해야”

“신종플루 국내 2만~4만명 사망”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옛 도청 앞 집회

지역 대학교수들도 원안대로 공사 진행 촉구

오는 9월 옛 도청 별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 발표를 앞두고 문화전당 건립공사의 조기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회원 500여명은 27일 오전 광주 동구 옛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의 미래를 위해 문화전당 건립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도 광주 시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 것이다”며 “광주시민들은 어떠한 이유라도 공사 중단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공사 조기 진행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전남대, 조선대 등 30여

명의 교수들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별관 준치 여부 논란은 사업 자체의 파행, 지역사회가 겪게 될 불이익, 비전의 상실과 갈등 등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원안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가 교수들의 이같은 입장을 반박하고 나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위한 광주전남시도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일부 교수들이 도청 보존에 대한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옛 도청 부지에 건립 중인 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해 6월24일부터 별관 보존을 주장하며 5·18단체가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논란을 거듭, 1년 여 동안 건립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장,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10인대책위원회’는 별관 1,2층을 뚫어 통로를 만드는 ‘오월의 문’, ‘3분의 1준치’ 대안을 정부에 제시, 9월 중 발표될 정부의 최종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회원들이 27일 광주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앞에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진행 촉구 범 시민 쉼기대회’를 갖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민주당 최영희 의원 복지부 자료 공개

정부가 신종플루 대유행시 최대 2만~4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신종플루 대유행시 입원환자를 10만~15만명, 사망자를 1만~2만명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는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등을 통해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펼쳤을 때의 예상 수치다.

방역 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감염되고 입원환자 20만명, 사망자 2만~4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최 의원은 “신종플루가 대유행하면 발병률을 30%로 가절할 때 2736

천200여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 것으로 추계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다음달 초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을 넘은 뒤 10~11월 신종플루가 유행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면서 환자 조기발견·치료, 백신접종 등 선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신종플루 사망자 추정치는 영국이나 호주 등 외국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나온 수치를 우리나라에 단순 적용해 계산한 것으로 현실성이 낮은 시나리오이며 사회·경제적 비용도 2006년 당시 조류인플루엔자를 전제로 추계한 것보다 낮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환자 생겼다고 휴교 말라”

안병만 교과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7일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선 학교에 신중한 대처를 당부했다.

그는 이날 오전 신종플루 감염자 1명이 발생한 서울시에 한 초등학교를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교사 수缺형이나 소풍, 운동회 등 단체행사를 가급적 자제해 2차 감염을 방지해줄 것과 사전에 작성한 휴교나 개학 연기에 따른 수업 결손 보충 대책도 마련해줄 것도 당부했다.

/연합뉴스

검찰자료서 출신지·학연 없앤다

김준규 총장 기자간담

김준규 신임 검찰총장은 27일 대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검 자료에서 지연·학연 관련 내용 모두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데이터베이스(DB)에서도 출신지와 학과는 삭제되고, 법조인대관에도 검사들이 동의서 내서 지연·학연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역할론과 관련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직접 책임지고 수사 지휘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어느 나라든 중수부와 비슷한 부서가 있고, 전국적 관할 사건

은 맡을 곳이 있어야 하고, 내가 직접 (수사)할 건 한다는 생각이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 조직 안에서 검사와 직원 사이의 오랜 벽을 깨기 위해 능력을 인정받는 수사관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고, 졸업하면 가급적 검사로 임용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토착비리 근절에 대해서는 “검찰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가 부패 척결이고, 검찰은 모두 공감하는 말인 만큼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세욱 광주지법원장 사의

오세욱 광주지법원장(55·사시 18회)과 유원규 서울가정법원장(57·사시 19회)이 27일 이윤환 대법원장에 사의를 표명했다.

1981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오 원장은 대법 재판연구관, 장흥지법장, 순천지법장,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장 등을 역임했다.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오 유원석 변호사의 아들이기도 한 오 원장은 1979년 임관해 대법 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장,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사표가 수리되면 대법원은 대법관으로 제정된 민일영 청구지법원장의 자리를 포함해 3개 법원장급 보직에 대한 승진 인사를 할 예정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문대 수시 21만여명 선발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2010학년도 전문대 수시모집에서 전국 143개 전문대가 총 21만4천476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는 올해 수시와 정시를 합친 전체 모집 인원의 72.3%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해 수시모집 인원보다는 1만2천600여명 줄어든 것이다.

올해부터는 수시 1학과와 2학기 구분 없이 수시 하나로 통합해

학생들을 모집한다.

수시모집 인원은 총 21만4천476명으로 올해 전체 모집 정원(29만6천625명)의 72.3%다.

지난해 수시모집 인원(22만7천120명)에 비해서는 1만2천644명 줄어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협의회 홈페이지(www.kc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양건 권익위원장 들은 사퇴

양건 국민권익위원회장이 27일 일선 상의 이유로 중도 사임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미군통제민권위원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초대 위원장으로서 기관의 기초를 다지는 소임은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임기가 남아 있지만 중도 사임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쇄신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중두

올해 참 여러가지로 애도 많이 한다

복제소 ‘영롱이’ ‘진이’ 2~3년 전에 죽었다

황우석 측근 밝혀

황우석 사단이 국내 최초 체세포 복제 실험과 한우라고 주장한 ‘영롱이’와 ‘진이’가 이미 2~3년 전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박사과 함께 복제소 연구활동을 하는 모 대학 A교수는 27일 “영롱이와 진이가 이미 2~3년 전 죽었다”라며 “황 박사의 논문 파동을 겪으면서 이 복제소들을 제대로 관리할 경향이 없어 정확하게 언제 죽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다.

A교수는 또 “죽은 영롱이와 진이

이의 사체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다만 소 각장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롱이와 진이는 일반 소들과 비슷한 수명을 살고 고령으로 자연 도태된 것”이라며 “복제소로서 일찍 죽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교수는 “내가 영롱이가 태어날 때 직접 받은 사람”이라며 “영롱이와 진이는 진짜 체세포 복제 소이며 가짜일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분실

광주광역시 주민등록증 No. J01-11-0212 광주C.C 매순한 상거 회원증(大小)을 분실공고함.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중립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권리자는 공고 기간내에 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강제 발굴의 책임은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전남 화순군 이서면 보물리 산1-4번지
2. 분묘가수: 1기
3. 개장사유: 재산분할
4. 양측(중수: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봉곡리 공동 묘지
5. 연고기간: 10일
6. 공고기간: 2009. 08. 28 ~ 2009. 09. 06 (1개월)
7. 개장방법: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외의 개장 - 무연분묘:연고자와 협의의 개장
8. 신고 및 문의처: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봉암아파트 101-1401. TEL: 010-2028-5188
9. 신고요령: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사항: 시범이 관할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9년 8월 28일 위공표인: 김철환

금산공인중개사

T.681-5688 H.011-801-5354 (금호동 서광주역 건너, 2층현도로번)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용지 (C1지역)매매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근처, 심상화재빌딩 옆4면 광로번

부동산투자클럽 공인중개사무소

(용봉동 하이마트 옆 육교 바로 아래)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1-641-0925 062)515-4985

추천 금매출진 - 펜션부지최적

월출산 국립공원 입구 대지면적 7,665㎡ 가든식당 매매 -식당 (연회석 300석 완비) - 피로연, 회갑연, MT회적, 체육시설 (수영장, 족구장), 농장 (옛돼지, 오리, 토종닭), 단란주점, 숙박업 - 현 성업 중, 모든시설 허가됨 -매매가 3.3㎡당 32만원-

고시텔매매 (금년 5월 준공, 최신시설, 풀 옵션) 대 282㎡ / 건 560㎡ 룸 52 실(룸 당 월 23만원) 전대 후문 건너 체육공원 인근 -매 8억 5천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연설리더십설득력향상과정

1.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명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2. 모집인원: 50명 선착순 *지원대상: 직장인, 일반인, 주부, 기업체장 및 학생,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

3. 강의요일 및 시간 *야간(매주 금요일) 19:00~21:00

4. 교육기간: 2009년 9월 7일 ~ 12월 18일(15주) *교육요율: 실습위주교육 (실습70%, 이론30%)

5. 교육과정: 대화 및 연설기법, 발표력, 남 앞에서 두려움없이 말하기, 각종 행사 사회 진행 요령 및 연설문 낭독 요령, 각종 원고 작성요령, 리더 및 지도자로서의 품위 향상 교육, 지방선거 공식선거 출마 연설문 작성 및 지도

6. 원서교부 및 등록기간 *등록기간: 2009년 7월 13일(월) ~ 9월 7일(월) *등록장소: 월~금 (오전 10시~ 오후 5시) *등록장소: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과 (호심관4층)

7. 등록방법 (수강료: 200,000원) *직접방문접수 또는 전화 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한국 정치 연수원 교수 - 대통령실 전국유망연설대회 대회본부장 *각종 스피치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기초광역의원 공약기초단체장, 국회의원후보연설지도 및 연설문 작성(30년) *사단법인 한국유망연설회 광주본부 회장 *저서: 말하기 교본, 스피치 웅변 연설 리더십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670-2167, 2168 FAX: 062)670-2475 HP: 010-5692-9998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용석(541027-1581118)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회고)에 관한 민법 제108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년 단 5

공고인: 김삼현, 김원병 한정승인수리일: 2009. 8. 24. 공고기간: 2009. 8. 28. ~ 2009. 10. 27. (2개월) 연 락 처: 광주시 북구 용봉동 1461 주공아파트 107-401 김삼현(010-3432-4620)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권리자께서는 다음 신고처로 신고하시고 개장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우리군에서 임의의 개장 하겠다는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가수: 전남 고흥군 과곡면 연동리 산118번지 (무연분묘 2기) 전남 고흥군 과곡면 연동리 산120번지 (무연분묘 3기) 전남 고흥군 동강면 오월리 산17-2번지 (무연분묘 3기)
2. 개장사유: 과역 연동 ~ 월야간 농어촌도로 102호선 개보수공사및 동강 오월(내대) 농어촌도로 101호선 폭포공사사 구간에 편입
3. 개장방법: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과사 임의의 개장 - 유연분묘: 연고자 또는 관리인과 협의의 개장
4. 개장장소: 공사구간 인근 분묘 무연묘 묘단
5. 개장후 안치장소: 전법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평화원 남광면)
6. 공고기간: 2009. 08. 28. ~ 2009. 09. 28 (1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고흥군청 건설과 (061-830-5265) 또는 과역면사무소(061-830-6110), 동강면사무소(061-830-5614)
8. 기타: 공사구간 추가 분묘 발견시 이는 공고로 갈음함

2009년 08월 28일 고흥군수

대지

약2850㎡, 가격 협의가능

- 근린시설 APT신축, 병원 일반상가, 기타 중심 상업시설 가능
- 최고의 교통접근(광주 시청 접근성과 5.18 광로번)
- 광주최고의 상권, 최고의 입지 상업지역
- 현재 10층 신축건물 앞

24시간 상담 기다리겠습니다.

임야

▶ 16,925㎡(계획관리지역) - 나주 남평 (중흥스파랜드 입구) - 매 3.3㎡당 8만5천원

대지

▶ 683㎡(제 3종 일반 주거지역) - 남구 진월동(광주대 인근) - 매 11억

▶ 914㎡ - 용봉택지지구 현대 3차 앞 - 매 3.3㎡당 300만원

상가주택

▶ 대 496㎡/건 1487㎡(6층건물)-오치동 아파트단지 입구 -매 17억

※ 사원모집 - 상가 중개, 경매컨설팅 하실분 모집입니다.